

## 페미니스트 작가의 계급적 감정

— 박완서의 남성 지식인 비판과 자기서사

장 영 은\*

### 요약

이 글에서는 스스로를 진보적인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소설가로 인식했던 박완서의 1990년대 정치적 글쓰기의 특징을 「티타임의 모녀(1993)」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에 박완서는 평등과 해방을 꿈꾸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엘리트 남성 지식인을 작품에 등장시켜 명문대 졸업생이 전위적인 운동가가 되기 어려운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티타임의 모녀」에서 1980년대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렸던 남성 엘리트 지식인은 동구권이 몰락하고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후 정치적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만다. 그는 돈을 벌어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아들의 낙상 사고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부르주아 가문으로 귀가하게 된다. 박완서는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했던 남성 지식인들이 가졌던 혁명적 열망 즉 '계급적 감정'이 신분 상속 질서를 지탱시키는 '친족적 충실성'과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난 것이 1990년대 '운동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티타임의 모녀」에서 1990년대 초반 진보 진영의 엘리트 남성 지식인들이 이 두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분열하는 존재로 재현된 반면, 여공 출신인 감일순은 학력 자본을 위시한 지식의 위계를 부정하면서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관한 무식과 착각을 철저히 경계했다. 이러한 면모는 마치 1990년대에 페미니즘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면서 여성주의 관점으로 적극적인 발화를 시작했던 박완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주제어: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1993)」, 페미니즘, 계급적 감정, 친족적 충실성, 아비투스, 신분 상속, 자기서사

\*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계전공 초빙교수

목차

1. 여성 문제를 소설화하는 일
2. 엘리트 남성 지식인의 모습
3. 대학을 안 가는 용기
4. 무식과 착각의 경계

“운동권이 귀티를 그렇게 좋아할 줄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는가?”  
-박완서<sup>1)</sup>

“결국 나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했다.”  
-마쓰모토 세이초<sup>2)</sup>

## 1. 여성 문제를 소설화하는 일

사후(死後) 1년 뒤인 2012년에 출간된 생애사 구술 회고록에서 ‘말년’의 박완서는 자신을 향한 ‘여성 학자들과 남성 학자들’의 상반된 평가에 담담하게 반응하고 있었다.<sup>3)</sup>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고, 참고할 만한 것도 있고 귀 기울일 만한 것도 있지. 어떻게 박수만 받았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인 문제의식이 줄어들었다는 견해에는 바로 저항감을 드러냈다.

1)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박완서 단편소설전집 5』, 문학동네, 2019, 364면.

2) 마쓰모토 세이초, 김경남 옮김,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초,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 49면.

3) 조한혜정은 이러한 현상을 남성 엘리트 집단이 주도해 온 한국 문단의 폐해인 ‘여성 작가를 비하하고 여성 역압을 부추기는 비평’의 누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한혜정, 「박완서 문학에서 비평은 무엇인가?」,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바로 여기 교실에서, 또하나의문화, 1992, 197-254면 참조.

“나는 역사 의식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sup>4)</sup> 박완서는 스스로를 “문단 쪽에서는 내가 진보 쪽에 서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는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쓰는 제도이고, “아직도 경제 금권을 쥔 게 남자”이기 때문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답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페미니즘 소설가로 불러주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앞으로 꼭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룰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제게는 지금까지 여성 문제 이외의 것을 다룬 경우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성 문제를 소설화하는 일은 제게 중요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sup>5)</sup>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990년대의 박완서는 “페미니즘 프로파간다로써 글쓰기의 정치성”<sup>6)</sup>을 고민한 작가였다는 분석에 동의하며, 박완서가 부계 혈연 중심의 “상속 제도를 비판한 좌파”<sup>7)</sup>라는 평가 또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해령은 “박완서는 민주주의가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언제나 위태롭다는 것을 그려낸 몇 안 되는 작가”임을 부각시키며, 최근 “박완서 좌파로 읽기”를 진행 중이다. 박완서가 “집 밖으로 쫓겨나면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는 위치”의 중산층 여성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박완서의 문학적 상상력이 “혈연적 가족 아닌 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함께 거주해야 하는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임을 시사”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sup>8)</sup>

4) 박완서 구술, 장미영 채록 연구,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 5-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 수류산방, 2012, 231-237면 참조.

5) 박완서, 『박완서의 말-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48면.

6)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랩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2018, 7-36면 참조.

7) 이해령, 「박완서와 함께 왼쪽으로 한 걸음」, 『문학동네』 106, 2021, 172-176면 참조.

8) 이해령, 「박완서의 1980년대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국제어문』 79집, 2018, 357-383면, 1980년대 문학의 특징을 언어 및 행동 양식으로서의 글쓰기 행위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세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문학의 수행성을 규명한 연구로는 배하은, 『문학의 혁

오히려, 미셸 바렛과 메리 맥킨토시가 주장한 이른바 ‘반(反)사회적 가족’의 특징이 박완서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주목해보고자 한다.<sup>9)</sup>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장(場)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박완서는 페미니즘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sup>10)</sup> 부르디외의 정의에 따르면, 장은 다양한 위치를 점유한 여러 행위자가 제각기 자본을 전유하고 독점하기 위해 경합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장에서는 주류와 비주류, 전통과 반(反)전통 세력의 대결구도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학장 역시 예외일 리 없을 것이다.<sup>11)</sup> 결론의 일부부터 미리 이야기하자면 박완서

명, 혁명의 문학』, 소명출판, 2021 참조.

- 9) 미셸 바렛과 메리 맥킨토시는 “상호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친족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적 부조를 받게끔 하려는 사람들은 진보주의자인 경향이 있었다.”라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안정과 보호의 상징인 가족이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반사회적인 특성을 갖는 기구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김혜경·배은경 옮김, 『반사회적 가족』, 나뭇잎, 2019, 7-117면 참조. 또한, 낸시 에이벨만은 한국 여성의 생애사를 연구하며 한국에서 가족은 계급정체성이 전승되는 사회적 공간이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계급정체성은 가족의 경험에서 발전해 나가거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사회이동의 중심에 가족과 여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여성들이 직접 이야기한 자신과 가족의 삶이 ‘멜로드라마’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 특히 돋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낸시 에이벨만, 강신표·박찬희 옮김,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 미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일조각, 2014 참조. 한편, 1970년대의 박완서의 작품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자본주의와 교섭”하는 인물들과 “진향과 여성되기”의 연동성을 분석한 한경희의 연구로부터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또한,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이 자기 삶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면모를 가부장적 교섭의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Deniz Kandiyoti, *Gendering the Mickle East: Emerging Perspectives*, Syracuse Univ Press, 1996 참조.
- 10) 피에르 부르디외, 신미경 옮김,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 125면. 또한, 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중주의’를 90년대 문학의 전위성으로 활용하면서 문학의 정치성을 미학적 안으로 한계 짓고 문학의 특권적 권위가 강화되는 양상을 논의한 조연정의 글에서 ‘문학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들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 고찰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24(4), 2018, 329-374면 참조.

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남성 지식인들의 방향 상실과 정치적 변화를 비판함과 동시에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냈다. 물론 1990년대 문학장의 변동 구조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 글의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지만, 적어도 1990년대 초반 박완서의 작품에서 펼쳐진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경합 양상을 예의주시하고자 한다. 김윤식은 1995년에 박완서의 「꿈꾸는 인큐베이터(1993)」를 상찬하면서도, “그 작품이 조금은 불편했는데, 작품 어딘가에서 이른바 여성주의랄까 페미니즘인가 하는 운동권스러운 외침 또는 김새가 감지되었기 때문”<sup>12)</sup>이라고 비평했는데, 이 대목에서 1990년대 초반에 페미니즘이 ‘운동권’을 상징하기 시작했거나 이미 ‘운동권’에 진입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가져보게 된다. 앞서 간략하게 검토한 것처럼, 만약 박완서가 스스로 밝힌 바처럼 ‘진보 쪽’에 속한다면 박완서는 1990년대 초반에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동시에 그녀 자신의 표현처럼 ‘페미니즘 소설가’ 박완서는 한국 사회의 남성 엘리트 지식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박완서가 학력 자본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세력에 비판적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지금부터 1990년대 남성 엘리트 지식인의 아이러니를 다룬 「티타임의 모녀」를 재독하고자 한다.<sup>13)</sup>

11) 1990년대적 특징으로 손꼽혀온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한국 근대문학의 기틀로 간주되어 온 리얼리즘과 민족문학론과 별인 대결 구도에 주목한 연구로는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삼투하는 문장들-한국문학의 젠더지도』, 소명출판, 2021, 271-307면 참조.

12) 김윤식, 「마른 꽃, 꿈꾸는 인큐베이터, 가는 비 이슬비」,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136면.

13) 이와 같은 관점은 1980년대 ‘여성독서 부재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남성 평론가들의 배타적인 지성사와 확연히 구분되는 여성독서사를 복원해 1980년대 시민사회의 동력을 새롭게 해석한 오혜진의 연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1980년대 여성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211-249면 참조 한편, 로버트 단턴은 프랑스 혁명

## 2. 엘리트 남성 지식인의 모습

박완서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진입 조건인 현금, 부동산, 학력 등의 자산이 결혼, 출산, 양육을 통해 증여와 상속을 거쳐 재생산되는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작가였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티타임의 모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박완서가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전복적인 질문들을 던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졸자 더 구체적으로는 명문대 졸업생은 과연 전위적인 운동가가 될 수 있는가?<sup>14)</sup> ‘교육비용’이 단순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개념임을 상기하면, 엘리트 지식인들이 자신들에게 학력 자본을 제공한 가족 혹은 친족을 배반하기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확인하게 된다.<sup>15)</sup> 「티타임의 모녀」에서 박완서는 사회 변혁에 뛰어 들었던 진보 지식인이 ‘계급적 감정’(class feeling)과 ‘친족적 충실성’(kin loyalty) 사이에서 분열하는 모습을 날카롭게 포착했

---

의 기폭제는 연애 소설, SF 소설, 포르노 소설, 중상비방문 등과 같은 사람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한 책들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람들의 봉건적 인식체계를 해체시키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한 혁명의 원천이 정치사상을 다룬 고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독서의 유행이 곧 삶의 평등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논증한 로버트 단턴의 통찰이 1990년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버트 단턴, 주명철 옮김, 『책과 혁명-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셀러』, 알마, 2014, 153-365면 참조.

14) 자크 랑시에르는 19세기 노동자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평등한 지적 능력에 기초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 읽고, 쓰고, 말하고, 사유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과정에서 찾고자 했다. 어떤 앎도 직접 전달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면서 앎의 원인을 제공하는 무지한 스승의 사례를 1818년 루뱅 대학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가 된 조제프 카코토의 지적 모험에서 찾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궁리, 2008 참조, 한편 김중엽은 한국에서 해방 후 지위배분의 지표 역할을 학력이 담당하면서 교육이 사회이동의 통로 역할을 수행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제도가 계급 재생산의 기제로 고착화되고 만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중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사회』 59, 2003, 55-77면, 피에르 부르디외, 장 클로드 파세롱, 이상호 옮김, 『재생산-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2000,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하, 새물결, 2005 참조.

15)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58면.

다.<sup>16)</sup> 20세기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이 중국인의 언어 및 의식의 영역에 급진적인 변혁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한 하이옌 리(Haiyan Lee)는 계급적 감정과 친족적 충실성의 개념을 정립한 바 있다. 하이옌 리에 따르면 계급적 감정은 무산계급 구성원들에게는 동등하게 적용되는 수평적인 감정이지만, 부르주아 계급과의 관계에서는 중요와 원한의 감정으로 전환된다. 계급적 감정은 친족적 충실성과 낭만적 사랑, 인도주의적 사랑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이옌 리의 주장은 1990년대 초반 한국 지식인 사회 분석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은 계급적 감정 대신 인도주의적 사랑 혹은 친족적 충실성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재야를 자처했던 남성 엘리트 운동가들 가운데 일부는 정계로 진출하며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도 했다. 「티타임의 모녀」가 발표된 1993년의 ‘한국적인 삶’<sup>17)</sup>을 잠시 떠올려본다. 1993년 2월,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1990년 1월에 삼당합당으로 군사정권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당선 후 문민정부의 출발을 선언했다. 1993년 3월에 비전향장기수 이인모는 북한으로 송환되었다.<sup>18)</sup> 1993년 4월에 하나회가 숙청되었고, 같은 해 8월에는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 16호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sup>19)</sup> 서울노동운동연합을 만들어 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섰던 노동 운동가는 1994년 3월에 “민자당이 여당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

16) 이와 관련해서는 Haiyan Lee, *Class Feeling*, ed., Christian Sorace.,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ANU Press; Verso, 2019, pp. 23-28.

17) ‘한국적인 삶’이라는 표현은 장 폴 뒤부아의 소설 『프랑스적인 삶(2004)』에서 차용했다. 작가는 주인공 폴 블릭의 반세기를 프랑스 정권의 변천사 속에서 이야기한다. 이 작품의 목차는 상당히 예외적인데, 각 장이 샤를 드골에서 자크 시라크까지 대통령 임기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 폴 뒤부아, 함유선 옮김, 『프랑스적인 삶』, 밝은 세상, 2005 참조.

18)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적대적 공생의 비극』, 한울, 2013 참조.

19)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1-3당 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인물과사상사, 2006 참조.

기에 입당하게 되었다”<sup>20)</sup>는 말과 함께 당시 ‘대통령이자 여당 총재’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다. 집권 여당과 ‘대척점’에 있었던 민중당 대표 역시 뒤이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진보는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sup>21)</sup>이라고 주장하며 구로 공단 지역 민자당 지구당의 위원장이 되었다.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의 정치적 변신이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1993년에 박완서는 작가로서 자신의 보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었다. 1993년에 「꿈꾸는 인큐베이터」(《현대문학》 1월호), 「티타임의 모녀」(《창작과비평》 여름호),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상상》 창간호 가을호) 세 편의 단편소설을 차례차례 발표했다. 같은 해 세계사에서는 〈박완서 소설전집〉이 출간되었다.<sup>22)</sup> 한국 역사에서 “1980년대라는 정치적 시공간이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2년이라고 보는”<sup>23)</sup> 관점을 떠올려볼 때,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년에 박완서가 엘리트 운동권 남성의 아이러니를 「티타임의 모녀」에서 비판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티타임의 모녀」를 “일부 운동권 중산층의 허세를 파헤친 작품”<sup>24)</sup>으로 평가한 이남희의

20) 「2012 대선주자 탐구-김문수 변신 혹은 변질의 삶」, 『한겨레』, 2012.7.26.

21) 「이우재씨 재빠른 ‘말’의 변신」, 『한겨레』, 1994.11.12.

22) 한경희는 박완서가 1970년대부터 대중문학장, 민중문학장, 여성문학장에서 호명되어 담론 권력을 부여받은 과정에 주목하며 박완서의 문학 텍스트 생산 과정을 작가로서의 발화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 발휘했던 능동적인 행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23) 김정환, 『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 후마니타스, 2021, 8면. 한편, 김정환은 1991년 5월 투쟁 이후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까지 자본과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지만, 소비사회,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개념이 유행하면서 1980년대의 운동 담론들은 점차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된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또한, 지배 세력과 저항 세력의 결전의 장이었던 1991년 5월 투쟁에서 결과적으로 “민중운동 세력은 패배했고 민주화 과정은 극히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하며 1991년 5월 이후를 비혁명의 시대로 명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환, 『비혁명의 시대-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13-105면 참조.

24) 이남희,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평가에 동의하지만, 박완서는 ‘일부 운동권 중산층’이 왜 ‘허세’를 부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는지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고 해석된다. 학력과 관련해 매우 복잡하고도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박완서에게 엘리트 남성 지식인의 모순과 허세는 한국의 사회 구조와 연동되는 문제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티타임의 모녀」를 분석하기에 앞서 박완서가 자신의 대학 시절이 왜 짧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회고한 자기서사부터 검토해보겠다.<sup>25)</sup>

### 3. 대학을 안 가는 용기

〈엄마의 말뚝 1(1980)〉에서 구체적으로 재현되기도 했지만, 박완서의 어머니는 딸을 ‘신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가부장제 질서와 맞섰던 여성이

2015, 451면.

25) 이선미는 1991년 이후의 박완서의 자전적 글쓰기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계화 시대에 저항하는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주장하며, “박완서의 전쟁 이야기가 증언에서 현실비판으로, 현실비판에서 정치적 발언”으로 비약하는 과정을 부각시켰다. 또한, 한경희는 1993년에 발표된 「티타임의 모녀」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두 편의 소설이 “집단/개인, 정치/일상, 공/사, 정신/물질, 보편/개별, 추상/구체, 이념/욕망 등의 이분법을 전유하여 전자의 향이 후자의 향을 억압해왔음을 비판하면서 후자의 향을 옹호하는” “전환기 문학장의 탈이념화 작업에 동참하여 생산”된 문학 텍스트임을 분석했다. 한편, “소설의 한 장면이 작가의 실제 경험이나 당대 역사적 사실과 교섭하고 있음을 섬세하고 읽어내는 신역사주의” 관점으로 박완서 소설의 ‘정치성’을 분석한 신선희의 논의와 더불어 1970년대에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거의 다루지 않았던 박완서가 198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된 계기에 주목하면서 학생운동을 지식인의 시선이 아닌 어머니의 시선으로 본 박완서 문학의 특질을 강조한 이영아의 연구에서 대문자 역사와 박완서 문학의 관계를 고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기역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2004, 403-432면,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07면, 신선희,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 72, 2017, 205-232면,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2012, 609-639면 참조.

었다. 동네 서당에서 천자문을 가르쳤던 할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과 서울 근교에서 경기도 개풍으로 시집오면서 진학의 기회를 놓쳐버린 채 ‘숙명 교복’과 ‘진명 교복’을 선망했던 어머니의 교육열은 결국 크게 충돌했다. 박완서의 아버지가 ‘맹장염 정도의 병’으로 사망하자 박완서의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서울로 ‘출분’하기로 결심한다. 박완서의 회고에 따르면,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더러 “네가 공부 공부 안 해도 개는 벌써 <천자문> 떼고 <동몽선습> 배우는 중이다”라고 점잖게 나무라시자 “그게 어디 공부하는 겁니까? 재롱 보시는 거죠. 전 개도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sup>26)</sup> 라고 시아버지에게 응수할 정도로 박완서 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다. 샴바느질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면서도 “서울에 온 김에 그 빈촌의 학군인 변두리 소학교에 갈 게 아니라 시내 중심지의 학교에 보낼 욕심으로” 주소를 친척 집으로 옮기는 위장 전입까지 감행했던 어머니는 박완서에게 ‘소학교’ 시험을 위해 가짜 주소부터 위우도록 했다.<sup>27)</sup>

박완서는 숙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1950년 6월 초에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다. 입학 당시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다고 한다. “제가 문리대에 가니까 어머니가 국민학교 선생에서 중학교 선생이 됐음 좋겠다 했어요. 제가 숙명 들어갔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때서부터 (손을 위로 올리며) 좀 높이는 거예요. 너 숙명에서 공부 잘 하면은, 일제 시대 때니까 1등으로 졸업하면 일본의 나라 고사든지 동경 고사든지 보내준다. 고등사범학교, 고등사범학교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늘 같이 우러르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sup>28)</sup>

박완서의 회고에 따르면, 대학을 2주 남짓 다니다가 전쟁을 겪었고, ‘사

26) 박완서, 『박완서의 말-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41면.

27) 박완서, 「나와 어머니」,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박완서 산문집7』, 문학동네, 2021. 226면.

28) 박완서 구술, 장미영 채록 연구, 앞의 책, 수류산방중심, 2012, 99면.

변통'에 오빠와 숙부를 잃은 뒤 줄지에 “노모와 올케와 연년생의 어린 조카형제”의 부양자가 되고 말았다. 서울 수복 후에 “등록도 해 보고, 피난지 임시천막대학에 이름도”<sup>29)</sup> 올라가며 어떻게든 학교를 다녀보고자 했지만, 당장의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처지에 ‘돈 드는 등록’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박완서는 “문리대 앞을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한 끝에 대학을 겨우 단념할 수 있었다.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한 박완서는 작가가 되고 나서야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든 문리대 앞을 지날 때면 그 캠퍼스 안에서 눈에 띄는 누구에게나 맹렬한 질투를 느낀다(실상 이걸 내 은밀한 비밀이었는데).”<sup>30)</sup> 대학 중퇴를 결정할 즈음에 박완서는 올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학생’ 시누이가 학업을 포기하고 취직을 결정하자 올케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살림밖에 모르던 젓먹이까지 달린’ ‘극빈 상태’의 올케가 ‘광기의 가까운 눈빛’으로 박완서에게 호소한다.

“양갈보 짓이라도 해서……”

그녀가 그 때 한 말이다. 그 때 서울에서 양갈보가 참 좋은 여자벌이었다. 그녀는 내가 다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길 바랐던 것이다. 아직 젓먹이인 자기 자식에게 그런 기대를 걸기엔 그녀의 소망이 너무 다급했다. 그녀는 단박에 망한 집안의 단박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겁이 났다. 그녀의 엄청난 소망이, 어린애같이 천진한 꿈이. 물론 나는 그럴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그녀의 소망을 뿌리치고 취직을 했다. 그러고 나니, 그렇게 흥분할 수가 없었다. (……) 그러나 후회는 없다. 만일 내가 다시 내 생애를 반복할 수 있다면 제일 큰 소망이 6·25 같은 전쟁이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도 허용이 안 돼 그런 난리와 그런 끔찍한 곤궁을 다시 겪게 된다면 역시 내가 했던 것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29) 박완서, 「참 비싼 레테르도 다 있다」, 『쑥스러운 고백-박완서 산문집1』, 문학동네, 2015, 159면

30) 박완서, 앞의 글, 159면

것 같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위해 감히 누가 누구의 인생을 희생할 수 있던 말인가.<sup>31)</sup>

올케와의 대화에서 받은 충격이 박완서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1976)」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제 딸을 양갈보 짓 시키지 못해 눈이 뒤집힌 여자를 어머니로 가진 여자”<sup>32)</sup>가 완벽하게 허구의 인물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박완서는 자신의 ‘은밀한 비밀’을 고백한 후 당당하게 주장한다. “대학을 안 가는 용기와 그 나름의 긍지도 가져봅직하다. 부끄러울 것도 위축될 것도 없다. 무언가 할 일을 발견해서 열중해볼 일이다.”<sup>33)</sup> 박완서는 올케의 제안을 거절했다. 올케가 ‘양갈보 짓이라도 해서’ 번 돈으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박완서에게 윤리적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올케의 몸을 담보로 대학을 다니는 일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완서는 “온갖 종류의 모순과 긴장이 깃든 분열된 아비투스”<sup>34)</sup>의 재앙을 물리쳤다.

박완서는 대학 중퇴와 함께 직장을 구해 가족을 부양했다. 대학을 포기한 대신 문학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회고를 훗날 박완서는 여러 차례 남겼다. “남들은 잘도 잊고, 잘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더니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리고 잘만 사는데,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속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규명해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나의 성미가 훗날 글을 쓰게 했고 나의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sup>35)</sup> 결국,

31) 박완서, 앞의 글, 160면.

32) 박완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지렁이 울음소리』, 민음사, 2021, 61면.

33) 박완서, 「참 비싼 레테르도 다 있다」, 앞의 글, 161면.

34) 피에르 부르디외, 『자기분석에 대한 초고』, 이상길, 『아틀라스의 발-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문학과지성사, 2018, 41면에서 재인용.

35)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예수-박완서 산문집6』, 문학동네,

박완서는 1970년에 1200매 분량의 소설 『나무』를 ‘쾌속으로’ 써서 작가가 되었다. “사사한 바도 없고 습작기도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면 으스대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sup>36)</sup>고 혼자서 책을 읽으며 작가 수업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한편 박완서는 자신의 학력을 고졸이라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나는 꽤 자세하게 내 경력을 써내야 할 경우에도 절대로 대학 중퇴라고는 쓰지 않는다. 고졸이 좋다. 그건 결코 내 겸손의 소치가 아니라, 내 나름의 조그만 오만ियो, 긍지의 소치인 것이다.”<sup>37)</sup> 지위 배분과 권력 재생산이 작동되는 학력주의가 능력주의와 등치 개념으로 인식되는 한국 사회에서 박완서는 자신의 문학적 성취가 ‘학력’이나 ‘학벌’과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사실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문학과 독학은 전혀 어색한 조합이 아니다.<sup>38)</sup> 박완서의 작품에는 학력과 같은 제도적인 문화자본보다 책을 좋아하는 교양인의 면모와 진지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우수에 잠겨 있는 지식

---

2015, 12면. 김양선은 박완서 글쓰기의 출발이자 동력이 되는 가족사의 비극과 한국전쟁의 기억이 자전적 소설을 통해 복원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박완서 문학이 증언의 양식을 통해 사적인 경험을 역사적 맥락에 위치지어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144-165면 참조.

36) 박완서, 앞의 글, 40면.

37) 박완서, 「참 비싼 레테르도 다 있다」, 앞의 글, 162면, 한편, 김동춘은 시험 합격의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능력주의가 자원과 지위의 분배 및 노동시장이 작동한 결과의 일부임을 밝혀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창비, 2022 참조.

38) 황호덕은 독학자의 운명과 성격을 입화와 마츠모토 세이초의 생애와 작품으로 분석하며, 문학의 사회주의 더 나아가 문학 그 자체가 독학자들을 잇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호덕, 「문학과 사회주의, 독학자들의 영원한 다리-입화와 마츠모토 세이초의 독학과 기연」, 『독학의 진격자들-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푸른역사, 2019, 98-107면, 마쓰모토 세이쵸, 김병걸 옮김, 『북의 시인 입화』, 1987, 미래사, 마쓰모토 세이쵸, 김경남 옮김,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쵸, 반생의 기록』, 모비덕, 2019 참조.

인의 '체화된 성향'을 선호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sup>39)</sup> 1993년, 「티타임의 모녀」 직후에 발표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의 주인공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창환을 동서의 아들 창석이와 비교하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창석이가 나무랄 데 없는 아이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 창환이하곤 그릇이 다른 걸 비교가 되나요. 부모 속 안 썩이고 명문 대학 적적 들어가고, 졸업도 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모셔가고, 뒷사람 눈에 얼마나 들었으면 중매까지 서줘서 좋은 집 구수한테 장가들고, 형님이 아들 잘 기른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그렇지만 형님, 창석이가 대학 들어간 해가 언제예요? 바로 80년 아녜요. 80년에 대학 들어간 애가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 알 바 아니라는 듯이 공부만 봤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인간성이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람이 그러면 못 쓴대구요. 우리 창환이도 창석이보다 삼 년 뒤에 같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해도 창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죠. 그러나 우리 창환이는 캠퍼스의 최루탄 냄새를 피로워했어요. (……) 우리 창환이는 마음으로 더 많이 피로워했다고요. 그래요. 우리 창환이가 운동권이 아니었다는 건 형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sup>40)</sup>

박완서의 소설에서 타인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는 지적인 남성 지식인은 죽거나 살해당하거나 혹은 생사를 알 수 없거나 만날

39) 이해령은 박완서가 2009년에 발표한 「빨갱이 바이러스」에 주목하면서 주인공이 사회주의자 삼촌을 회상하는 다음의 대목을 강조했다. “내가 삼촌을 좋아했다는 게 생각만 해도 쓸쓸해지는 상처가 되었다. 삼촌에게선 우리 식구들에게는 없는 분위기가 있었다. 옷자락에서 풍기는 냄새까지 향긋했고 무뚝뚝한 식구들에게는 없는, 연민을 숨기지 못하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해령은 박완서의 소설 속 사회주의자는 상속되고 세습되는 지위와 부를 부정하는 인물로 재현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령, 「박완서의 1980년대」, 앞의 글, 371면 참조.

40)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5』, 문학동네, 2019, 384-385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출세 지향적이거나 이미 사회적 성취를 크게 이룬 남성은 박완서 작품에서 지식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인물로 재현된다.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에는 창석이의 또 다른 사촌으로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인물도 잘’ 났으며 ‘재학 중에 고시에 패스’한 법관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은 민가협에서 활동하며 판검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민가협 엄마들 따라 민주투사 공판하는 거 방청하러 가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니열하는 법관을 실컷 야유하고 툼툼 참까지 뺄고 온 끝인데 그 새파란 법관이 부럽기는커녕 한심해 보입니다.”<sup>41)</sup>

그렇다면, 박완서 작품에서 살아 있는 남성 지식인은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박완서가 “전직 운동권 지식인의 내면”보다 “전직 운동권이었던 중산층 가장의 내면에 집중하고 이들의 내면을 형상화”<sup>42)</sup>에 집중했다는 오자은의 분석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가져본다. 자기 자신을 “전 학교에 애착도 있고 좌익 운동하던 사람”<sup>43)</sup>이라고 설명했던 박완서는 「티타임의 모녀」에서 왜 자신의 학력과 가문의 이력을 숨긴 채 노동운동에 헌신하다가 결국 현실과 타협하고 마는 남성을 등장시켰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위장취업자와 결혼한 고등학교 중퇴 학력의 여성 노동자 감일순을 통해 박완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 4. 무식과 착각의 경계

「티타임의 모녀」에서 감일순의 아버지는 산동네에서 구멍가게와 연탄

41) 박완서,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 앞의 책, 382면.

42)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56면.

43) 박완서 구술, 앞의 책, 105면.

가게를 ‘겸하고’ 있고,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다니며 고등학생인 막내아들 성남이의 대학 진학을 인생의 희망이자 목표로 삼는다.<sup>44)</sup> 감일순은 집안 형편 상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채 공장을 다니다가 ‘그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학력을 알게 되자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걸 알고는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다.”<sup>45)</sup>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결코 ‘빨갱이’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결별을 통보하는 감일순에게 애원을 한다. 감일순은 자신의 신념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남자에게 평생 무시당하며 살기 싫었지만, ‘그’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세상”이며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에 따라서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세상은 옳지 못한 세상”<sup>46)</sup>이라고 감일순을 끈질기게 설득한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남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혼 이후부터 본격화된다.

감일순의 남편은 ‘영세한 납품업체’의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실직자가 되기도 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기까지’ 했지만 낙담하지 않았다. 감일순이 남편에게 의아해했던 일은 따로 있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인데도 ‘그’가 아들의 백일잔치를 준비할 돈을 어떻게 마련해온 것이었다. 아들의 백일날에는 “버젓한 직업들”을 가진 남편의 대학 동기들이 와서 ‘덕담’을 건넸는데,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녀석, 볼수록 귀티가 나네그러, 라고 감탄”을 하자 ‘그’는 환호했고 감일순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자 공장이 아닌 ‘그’의 선배가 운영하는 ‘조그만’ 출판사에 취직했고, 가끔 “돈을 벌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단 소리도 했다.”<sup>47)</sup> 하지만 비교적 평범했던 일상은 어느 날 아들이 옥상에서 떨어져 머

44)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박완서 단편소설전집 5』, 문학동네, 2019, 370면.

45)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1면.

46)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2면.

47)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5면.



리를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급변하게 된다. 낙상한 아들을 감일순은 집주인 아저씨가 ‘용하다고’ 한 동네 병원으로 데려갔다. ‘놀란 데 맞는 주사를 맞고 돌아온 아들은 다행히 깊이 잠들었고, 감일순은 치료를 잘 받았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아이는 ‘신음소리’를 내며 고열에 시달렸고, 감일순은 여전히 “의사가 걱정 말랬다”는 말로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남편은 감일순에게 ‘무식’하다고 역정을 내며 아이를 안고 즉각 ‘큰 병원’으로 달려가 “어디다 전화를 걸었다.”<sup>48)</sup> 고아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큰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 집안’의 아들이었다. ‘뇌수술의 최고 권위자’인 남편의 백부에게 감일순의 아들은 바로 수술을 받고 특실에 입원한다. 남편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아들 “지훈이가 받은 귀빈 대우를 은근슬쩍 자랑하곤 했다.”<sup>49)</sup> 퇴원 후, 감일순은 ‘지훈이 고모네’가 해외로 떠나면서 비어 있는 넓은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된다. 아들은 새로 다니게 된 유치원을 좋아하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가문에 투항한다. 주위에서 남편에게 건네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의 진의와 저의를 감일순은 곱씹는다.

박완서는 「티타임의 모녀」에서 노동 운동가가 숨겨온 출신 배경이나 귀티와 특실, 귀빈대우를 좋아하는 모순적인 태도만을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일순은 ‘무식’하고 그녀의 남편은 ‘유식’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3년에 빠른 속도로 펼쳐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 지식인들의 좌절과 번민을 감안할 때, 「티타임의 모녀」에서 박완서는 엘리트 남성 지식인들의 굴절된 내면을 해부하며 지식의 위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정치적 의제를 다루었다.

48)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6면.

49)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8면, 매우 중요한 사람 앞에서 평범한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상황을 권력남용과 신분주의와 연결시켜 고찰한 연구로는 로버트 풀러, 안종설 옮김, 『신분의 종말-특별한 자와 아무 것도 아닌 자의 경계를 넘어서』, 열대림, 2004 참조

「티타임의 모녀」에서 ‘노동’과 ‘해방’의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인물은 이른바 명문가 집안과 잠시 절연했던 ‘최고대학’ 출신의 노동운동가 남편이 아닌 연탄배달부와 과출부의 딸 감일순이 아닐까? ‘어려서부터’ 노동자였으며, 노동자인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감일순에게 미래의 전망은 ‘병원장 집안’에서 제공되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 감일순은 진정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유식하지 않아도 주눅 들지 않는 공간인 ‘시골’로 삶의 터전을 이동하고자 했다. 해방은 “노동자의 종속된 지위에 상응하는 (비)지성만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편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의 긍정적인 확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떠올려보게 된다.<sup>50)</sup>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한편으로는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감일순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동구권이나 소련이 그이의 이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이의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려니 했다.”<sup>51)</sup> 감일순은 ‘그’의 오래된 정치적 신념이 역사적 사건으로 좌절될 만큼 나약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지만, 남편은 막상 실직을 하자 ‘돈’을 벌여 ‘공부를 더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왜 공부를 더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배우자에게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고, 감일순은 자신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지 않는 ‘그’를 ‘손님’에 비유했다. “나에게 그이는 늘 어려웠다. 스스로 손님 같았다.”<sup>52)</sup> 그런데 감일순은 남편에게 왜 아무 것도 묻지 않았을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자 해결할 수 없는 계급적 차이는 ‘지식’에서 발생한다.

그이는 매사에 나보다 유식했다. 그이가 나한테 유식한 체를 안 하려

50) 차크 랑시에르, 「공산주의 없는 공산주의자들」, 알랭 바디우 외, 슬라보예 지젝·코스타스 두지나스 엮음, 진태원 외 옮김, 『공산주의라는 이념』, 그린비, 2021, 310면.

51)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64-365면.

52)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56면.

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심히 쓰는 외래어나 시사용어 중에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많다. 그가 보는 책은 더군다나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것들 뿐이다. 그이는 모르고 있겠지만 나는 줄창 그이의 유식에 주눅들며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이가 들꽃에 유식한 걸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이가 나보다 많이 아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주눅들게 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이가 들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부터 나는 그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전까지 나는 그이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당장 그이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만 감지덕지했지, 미래를 꿈꿔보지 못했다. 우리 사이엔 꿈이 없었다. 꿈이 없는 사이가 과연 사랑이었을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농사짓는 그이 곁엔 내가 있어도 어울릴 것 같은 거였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보통 사람에게엔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자포자기해서 해보는 상투어가 나에게 참신한 희망이 되고 있었다. 내가 그이와 평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었다.<sup>53)</sup>

‘그의 ‘유식’에 주눅이 든 채 살아야 했던 감일순은 ‘들꽃’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들꽃의 이름은 설령 알지 못한다고 해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감일순은 학교제도나 문화자본과 무관한 들꽃에 관련된 지식만을 긍정한 것이다. 그녀는 왜 ‘시골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까? “지성의 공산주의, 즉 아무나가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하고 아무나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아무나의 능력을 긍정”<sup>54)</sup>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앞날에 관해서 일체 ‘의논’하는 법이 없고 오로지 ‘독백’만 내뱉는 배우자와 살면서 감일순은 ‘시골’로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외래어, 시사용어는 물론이고 ‘그가 보는 책’ 앞에서 초라함을 느껴 온 주인공은 위계적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53)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59면.

54) 자크 랑시에르, 앞의 글, 314면.

시골에서의 ‘평등’한 삶을 희망했지만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아들이 머리를 다쳐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으리으리한 병원에서 뇌수술의 최고 권위자”가 가진 의학 지식은 감일순 가족 전체에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sup>55)</sup>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들은 “안심해도 될 만큼 회복 된 후”에도 특실에 머물며 ‘귀빈’ 대우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감일순은 가족 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며 엄청난 모멸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병원 구성원이건 가족들이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의 특별 대우에서 나를 철저히 소외시켰다. 나의 소외감은 참담했다. 그들은 나를 없는 것처럼 대했다. 그들 사이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을 때 문병객이 나타날 적도 있었다. 그럴 때 그들은 나를 뵈기 바라보면서도, 어머, 아무도 없네, 하면서 돌아서곤 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천대였다. 그이도 그걸 아는지 거의 병실을 뜨지 않았다. 아마 아이가 수시로 나를 찾지만 았았다면 그 이 역시 있는 사람을 안 볼 순 없을 테니 솟제 없애버리려 들었을 것이다.<sup>56)</sup>

감일순이 ‘매사에 나보다 유식한’ 남편과 생활하며 느꼈던 소외감은 병원 특실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그리고 아들의 퇴원 후 미국 지사 발령으로 비게 된 ‘고모네’ 아파트로 이사를 간 감일순은 “이 집에 몸담고 살던 사람들은 몇 식구였으며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자 자신에게 “그보다 더한 악랄하고 모욕적인 거부”는 없을 것이라도 받아들인다. 상대방을 향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한다는 것과 같

55) 의학 지식 및 전문가의 권위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로는 어빙 케네스 졸라, 신수열 옮김, 『의료 만능 사회』, 『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 책, 2015, 55-92면 참조.

56)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앞의 책, 367면.

은 뜻이었다.<sup>57)</sup>

사실 감일순이 겪은 천대와 적대는 박완서의 작품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식의 위계, 문화자본의 격차가 엘리트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적대’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일찍부터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칼 카우츠키와 레닌이었다. 부르주아 지식인은 논리와 지식과 능력과 신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와 적대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던 것이다.<sup>58)</sup> 박완서는 지식의 위계로 벌어지는 갈등 관계를 보다 폭넓게 포착한다. 「티타임의 모녀」에서 지식의 위계가 단지 부르주아 지식인과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부각시킨다. 어머니가 딸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큰 아파트’를 딸의 집이라고 ‘착각’하자 감일순은 무척 괴로워한다.

“어머니의 착각은 무식하게스리 범벅 같다. 하도 뒤죽박죽이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착각이란 워낙 범벅인 것을, 나는 무식의 소치로 돌린다.”<sup>59)</sup> 아들이 머리를 다쳤을 때,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감일순은 남편에게 ‘무식하게스리’라는 말을 면전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마치 그 때의 남편처럼, 감일순은 어머니의 오판을 ‘무식하게스리 범벅 같다’고 평가한다. 감일순은 ‘전형적인 다세대주택 삼층집 옥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사십오 평짜리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게 되지만, “여행을 떠나와 호텔에 묵고 있는” 사람처럼 지냈다. “큰 아파트건 작은 오막살이건 자기 집이 그렇게 별안간 생길 리가” 없을 뿐 아니라, 2년 후에는 ‘고모네’가 미국에서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반면, 감일순의 어머니는 ‘이런 아파트’가 ‘내 딸네라는 게’ 마냥 좋기만 했다.<sup>60)</sup> 딸에게 “쓸데없는

57) 모욕과 신분 차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27-148면 참조.

58) 칼 카우츠키, 「프란츠 메링」, 레닌, 최호정 옮김,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우리 당대의 위기』, 박종철출판사, 2016, 173면에서 재인용.

59)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51면.

60) 복부인과 교육엄마 등의 존재로 개발독재기 한국 사회의 부도덕성을 드러내는 반(反) 멜로드

걱정으로 마음 줄이지 말고 낮잠 좀 피고 살아”가라고 충고한다. 어머니는 딸에게 더 좋은 ‘집’에서도 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타이른다. “지훈이가 누구냐? 김씨 집 장손이야. 딸한테꺼정 이런 집 사줄 만한 집이면 장손을 낳아준 아들 머느리한테 이 정도가 뭐 그리 대수라고.”<sup>61)</sup> 모녀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게 될 것인지 앞날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고 있었다.

한편, ‘고모네’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후 ‘그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는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일순 모녀가 ‘티타임’을 가지는 동안에도 김일순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았다.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지고 난 후부터 돈을 벌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던 김일순의 남편은 “귀티에 맞는 귀가”를 하고 난 후에 그토록 원했던 공부를 시작했을까? 무시와 억압이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그이’의 ‘계급적 감정(class feeling)’은 ‘친족적 충실성(kin loyalty)’을 끝내 극복하지 못 한 채, 결국 신분 상속 질서에 순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박완서는 1990년대 초반 진보 진영의 엘리트 남성 지식인들을 이 두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분열하는 존재로 재현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했던 1993년,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어느 엘리트 남성 지식인의 전향을 정치적 방향의 상실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김일순의 남편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신분 상속과 동일시하면서 ‘귀티에 맞는 귀가’를 결정했다. 박완서는 사회 변혁 운동에 참여했던 남성 지식인들이 가졌던 혁명적 열망 즉 ‘계급적 감정’이 신분 상속 질서를 지탱시키는 ‘친족적 충실성’과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난 것이 1990년대 ‘운동권’이 위기에 봉착

---

라마의 제도적 여성성을 성찰의 대상으로 포착한 1970-80년대 박완서 단편소설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호, 2016, 40-62면 참조. 중산층 여성들의 계급 상속 욕망과 젠더 권력의 격전지로서 부동산의 작동 원리를 여성들의 주거생애사로 분석한 연구로는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참조.

61) 박완서, 「티타임의 모녀」, 349-350면.

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학력 자본과 신분 상속 욕망이 결합되면서 ‘일부 운동권 중산층’의 혁명적 열망은 정치적 노스텔지어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진단을 과감하게 내렸던 박완서는 김일순을 등장시켜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문화’이자 ‘사상’이 진격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한다.<sup>62)</sup>

「티타임의 모녀」에서 여공 출신인 김일순은 학력 자본을 위시한 일체의 지식의 위계를 부정하면서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관한 무식과 착각을 철저하게 경계했는데, 이러한 면모는 마치 1990년대에 페미니즘과의 거리를 더욱 좁히면서 여성주의 관점으로 적극적인 발화를 시작했던 박완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1990년에 발표한 박완서의 글은 페미니즘 선언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라는 게 모든 잘못이 이전의 더 큰 잘못이 된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저지른 잘못이 아닌 태어난 잘못에 도무지 승복할 수가 없었다.”<sup>63)</sup> 박완서의 소설이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을 정치적인 제로 어떻게 응집시켰는지에 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2) 왕후이가 제시한 중국의 문화 개념에서 큰 시사점을 얻었음을 밝힌다. 왕후이에 따르면, 20세기 중국에서 문화는 20세기의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자 하는 행위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20세기 중국의 ‘문화’는 중국 혁명의 논리가 혁명을 구성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정부, 계급의 권력 행위를 뛰어넘게 된다. 이렇게 문화가 개입한 정치에서는 청년 문제, 여성 해방, 노동과 노동자, 언어와 문자, 도시와 농촌 등의 문제가 ‘문화’의 범주로 들어와서 정치를 창조 영역으로 만드는 정치화가 이루어졌음을 왕후이는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왕후이, 송인재 옮김, 『단기 20세기 - 중국 혁명과 정치의 논리』 글항아리, 2021, 13-412면 참조

63) 박완서,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박완서 산문집 7』, 문학동네, 2015, 101면

| 참고자료 |

1. 기본자료

『박완서 단편소설전집5』, 『지렁이 울음소리』, 『박완서의 말-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박완서 산문집 1, 6, 7』, 『예술사 구술 총서 <예술인·生> 5』, 『한겨레』

2. 단행본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1-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인물과사상사, 2006, 16-348면.

김동춘, 『시험능력주의 -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 창비, 2022.

김윤식, 『내가 읽은 박완서』, 문학동네, 2013, 136면.

김정환, 『비혁명의 시대-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2020, 13-105면.

김정환, 『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 후마니타스, 2021, 8면.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127-148면.

배하은, 『문학의 혁명, 혁명의 문학』, 소명출판, 2021, 9-102면.

손유경, 『삼투하는 문장들-한국문학의 젠더지도』, 소명출판, 2021, 271-307면.

이상길, 『아틀라스의 발-포스트식민 상황에서 부르디외 읽기』, 문학과지성사, 2018, 41면.

오혜진, 『원본 없는 판타지-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211-249면.

조한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1-바로 여기 교실에서』, 또하나의문화, 1992, 197-254면.

최시현, 『부동산은 어떻게 여성의 일이 되었나』, 창비, 2021, 25-178면.

한완상, 『한반도는 아프다-적대적 공생의 비극』, 한울, 2013, 18-490면.

황호덕, 『독학의 진격자들-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 푸른역사, 2019, 98-107면.

3. 번역서

자크 랑시에르, 『공산주의라는 이념』, 그린비, 2021, 310면.

레닌, 최호정 옮김,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우리 당내의 위기』, 박종철출판사, 2016, 173면.



- 마쓰모토 세이쥬, 김병걸 옮김, 『복의 시인 입화』, 1987, 미래사, 129면.
- 마쓰모토 세이쥬, 김경남 옮김, 『아직 늦지 않았다-마쓰모토 세이쥬, 반생의 기록』, 모비딕, 2019, 16-155면.
- 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김혜경·배은경 옮김, 『반사회적 가족』, 나뭇잎, 2019, 7-117면.
- 낸시 에이벨만, 강신표·박찬희 옮김,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 미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일조각, 2014, 38-81면.
- 로버트 단턴, 주명철 옮김, 『책과 혁명-프랑스 혁명 이전의 금서 베스트셀러』, 알마, 2014, 153-365면.
- 로버트 풀러, 안종설 옮김, 『신분의 종말-특별한 자와 아무 것도 아닌 자의 경계를 넘어서』, 열대림, 2004, 23-298면.
- 피에르 부르디외, 신미경 옮김,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 125면.
- 피에르 부르디외, 장 클로드 파세롱, 이상호 옮김, 『재생산-교육체제 이론을 위한 요소들』, 동문선, 2000, 143-276면.
-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상·하, 새물결, 2005, 130-685면.
- 피에르 부르디외,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58면.
- 이남희, 유리·이경희 옮김, 『민중만들기-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후마니타스, 2015, 451면.
- 어빙 케네스 졸라, 신수열 옮김, 『전문가들의 사회』, 사월의 책, 2015, 55-92면 참조.
- 왕후이, 송인재 옮김, 『단기 20세기 - 중국 혁명과 정치의 논리』, 글항아리, 2021, 13-412면.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궁리, 2008, 9-258면.
- 장 폴 뒤부아, 함유선 옮김, 『프랑스적인 삶』, 밝은 세상, 2005, 19-373면.
- 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275면.

#### 4. 원서

- Deniz Kandiyoti, *Gendering the Middle East: Emerging Perspectives*, Syracuse Univ Press, 1996, pp. 33-60.
- Haiyan Lee, Class Feeling, ed., Christian Sorace., *Afterlives of Chinese Communism : Political Concepts from Mao to Xi*, ANU Press; Verso, 2019, pp. 23-28.

#### 5. 논문

- 김양선, 「증언의 양식, 생존·성장의 서사 -박완서의 전쟁 재현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 2002, 144-165면.

-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팬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대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5, 2018, 7-36면.
- 김은하,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호, 2016, 40-62면.
- 김중엽,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사회』 59, 2003, 55-77면.
- 신셋별, 「정치적 텍스트로서의 박완서 소설」, 『동악어문학』 72, 2017, 205-232면.
- 이혜령, 「박완서와 함께 왼쪽으로 한 걸음」, 『문학동네』 106, 2021, 172-176면.
- 이혜령, 「박완서의 1980년대-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국제어문』 79집, 2018, 357-383면.
-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서사의 힘으로 1990년대에 맞선 작가」, 『여성문학연구』 25, 2011, 7-24면.
-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상허학보 12. 2004, 403-432면.
- 이영아,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관한 시선」, 『여성문학연구』 28, 2012, 609-639면.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256면.
-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24(4), 2018, 329-374면.
-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대중·민중·여성문학장에서 '주부'의 발화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Abstract>

## The Class Feeling of Feminist Writer – Park Wan-seo's Criticism of Male Intellectuals and Self-Narratives

Jang, Young Eun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writing practiced in the 1990s by Park Wan-seo, who recognized herself as a progressive writer and feminist novelist, focusing on 「Mother and Daughter at Tea Time (1993)」. In 1993, when the civilian government was inaugurated, Park Wan-seo sharply analyzed the reality that elite male intellectuals who jumped into the labor movement dreaming of equality and liberation are unlikely to become avant-garde activists. In 「The Mother and Daughter of Tea Time」, male elite intellectuals who boldly abandoned their vested interests in the 1980s lost their sense of political direc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Eastern Bloc and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in 1991. As soon as he tried to earn money to study, he naturally returned to the bourgeois family after experiencing his son's fall accident. Park Wan-seo pointed out that the revolutionary aspirations, or class feelings, of male intellectuals who participated in the social transformation movement were pushed out of the paternal-centered competition provided by families and relatives. On the other hand, Gam Il-soon, the main character of 「The Mother and Daughter of Tea Time」, denied the hierarchy of knowledge, including educational capital, but was thoroughly wary of ignorance and illusion of capitalism and patriarchy, reminiscent of Park Wan-seo's active speech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the 1990s.

key words: Park Wan-seo, 「The Mother and Daughter of Tea Time(1993)」,  
Feminism, Class Feeling, Kin Loyalty, Habitus, Class  
Inheritance, Self-Narratives

투 고 일: 2022년 8월 21일

심 사 일: 2022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2년 9월 22일